

분열과 대결을 극복할 비약(秘藥)



함세웅 신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이사장

저는 한반도의 일치와 평화를 간절히 염원하며 남북의 분단을 마음 아파하는 한 외교관을 만났습니다. 그는 늘 저에게 남북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야 한다면서 주변 강대국 중 그 어느 나라도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지 않고 있음을 역설했습니다.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러시아도 결코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남북한이 통일되면 인구 7천만 이상의 강대국이 될 것이 분명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방치하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우리 한국인들이 북한의 말에 귀 기울이고 북한과 대화하기보다는 미국의 말에 귀를 더 기울이고 미국의 뜻을 헤아리는 이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남북 대화가 그 어떤 정책보다 앞서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비교적 진보적 사고를 지녔다고 생각되는 저에게 이른바 우파 쪽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충고도 했습니다. 무려 50년 이상 반세기가 넘도록 반공 일변도로 세뇌되고 그것이 진리이며 정상인양 교육받고 성장한 기성세대들에게 오늘과 같이 변화된 사회는 너무도 생소할 뿐 아니라 두렵게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반공과 친미 일변도로 길들여진 이들을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한계를 차분하게 일깨워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북 대화를 지향하는 그 자세로 남한 내의 반대자들의 뜻을 헤아리고 그들을 설득하는데 더욱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좌우 대립을 통해 오늘의 성숙한 문화를 이룬 유럽의 여러 국가를 예로 들면서 진보세력들은 성급한 발걸음을 좀 늦추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른바 조·중·동의 미숙한 조작적 보도의 허구성도 저절로 밝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홀

륭한 지성인은 반대자를 감동시키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냉전 수구론자와 대화할 때 차분한 어조로 역사적 관점에서 성찰하고 이견을 좁혀야 합니다.

우리는 4천여 년의 같은 문화와 역사를 지니고 있는 단일민족입니다. 또한 우리 선열들은 일제 36년의 강점기 동안 그 일제에 맞서 함께 독립운동을 펼쳤고 우리는 바로 그 선열들의 같은 후손입니다. 그뿐 아니라 고구려, 백제, 신라의 3국시대 문화를 상기하면 당시에 3국의 갈등과 불목이 심각했겠지만 우리 후손들에게는 그 분열된 3국의 정치 문화가 모두 우리 조국의 같은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패망했지만 고구려와 백제가 우리 선조들의 삶이며 바로 우리의 역사 문화가 아닙니까? 당나라의 힘을 빌려 이룩한 통일 신라에 대해 우리가 늘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사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가 바로 우리 민족 전체의 하나의 역사입니다.

이와 같이 50년, 100년 뒤에 우리의 후손들이 역사를 기술한다면 결코 남한 중심의 역사만을 또는 북한 체제 중심의 삶만을 기술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는 남한의 역사도 그리고 북한의 역사도 모두 귀중한 선조들의 삶이며 특히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 막강한 미국과 핵문제를 놓고 대화를 통해 외교적으로 10년 이상을 동등한 처지에서 대결했다는 것은 참으로 민족의 긍지와 자주성으로 높이 평가될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구 유니버시아드 전후로 전개되었던 수구냉전 세력의 반복 시위와 기자회견 등은 바로 올바른 역사관을 갖지 못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토인비와 같이 한 차원을 높여 역사와 문명을 한 눈에 동시에 바라볼 수 있는 혜안을 지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른바 냉전수구론자들과 진취론자들이 공유해야 할 가치이며 바로 이것이 분열을 극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